

이달에 만난 양돈인

“제1회 양돈인의 날”에 농림부장관상 수상한

이 · 해 · 운

본회 익산 지부장

- 취재 : 조 진 현 -



▲농장을 배경으로 부인 백귀흠 여사와 함께

돈가 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겨우 kg당 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연히 상인들 사이에서 1800원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예전에도 돈가는 계속해서 급상승과 폭락을 해 왔으며, 겨울철이 되면 소비가 줄어 원래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이기도 하나 완전 수입개방이 된 지금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금방 다시 반전되어 급상승 될 것으로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협회, 관계기관 등이 물론 열심히 동분서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존한 채 기존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돈가하락을 걱정하고 푸념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정된 완전 수입개방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싸움을 할 양돈농가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기존의 양돈인들을 비롯이라도 한 듯, 지난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양돈인의 날” 행사에서 이효계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해운 본회 익산 지부장이 실질적인 경영관리를 으뜸으로 한 농장경영으로 알찬 이운을 남기고 있어 그의 탁월한 근면·성실함과 농장운영의 비결을 배워보고자 취재에 나섰다.

수량보다는 튼실한 돼지 생산에 중점

이해운(李海云·40세)씨는 현재 전북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에서 모돈 120두 규모의 삼부농장을 부인 백귀흠 여사(39세)와 함께 자가경영하고 있으며, 돈사 내부공사로 바쁜 가운데도 밝은 표정으로 취재에 임해 주었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만 몰리던 '79년에 군대를 갓 재대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모돈 18마리로 양돈업을 시작하였고, 본인 특유의 성실과 집념으로 '85년도에는 모돈 170두 규모의 전업농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고용노동자 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성을 일찍이 비교해 보고, 현재는 고용노동자를 두지않고 가족 자가노동으로 모돈 120~130두 규모를 알차게 사육하고 있다.

그는 100% 인공수정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유두수(PSY)를 늘리고, 사료급이체계의 단계를 설정

하여 기준에 맞게 단계별로 정확한 양을 급여하며, 계획에 짜여진 백신접종과, 최대한 돈사의 환경을 좋게 세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며, 수량보다는 튼실한 돼지생산에 중점을 두어 현재 출하시 70%가 A등급을 받으며, 20%는 B등급을 받는 품질 좋고 맛있는 돼지를 생산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농장의 돼지는 지역내에서 이미 품질을 인정받아 출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축협육가공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맛이 특히 다른 농장에 비해 우수해 명절때나 잔치때 주위에서 일부러 사러오는 분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한다.

새로운 분뇨처리 실시계획에 열중

지부장은 젊은 양돈인답게 지역 양돈인들의 선두에 서서 많은 사업을 구상·실시하고 있다. 지난 '91~94년에는 외국에서 랜드레이스, 요크셔 등 돼지를 수입하여 많은 노력을 들여 F1 삼원교잡을 이용한 중돈개량사업을 한 바 있으며, 자체 분만틀을 개발하여 사용·보급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기존 낡은 돈사시설을 수리·보수·개량하여 가족노동력 만으로도 더 많은 돼지를 더 쉽게 사육하기 위해서 돈사 내부공사와 여유 돈사 증축중에 있다.

이 외에도 톱밥돈사를 가지고 있는 그는 주위의 원예단지를 이용하여 분뇨처리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뇨처리의 경우 올해 초 시의 지원하에, 대규모 수두작 농민들과 합의하여 살포기로 뇨를 논에 시범적으로 뿌려보았고, 비 수확량이 비료를 안쓰고도 평년작 만큼의 수량이 나와 내년 가을부터 시의 보조를 받아 살포기, 저장탱크, 트랙터 등 공동처리시설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양돈농가들을 선도해 사업을 수

행할 계획에 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들에게서 일률적으로 뇨를 한 곳에 모아 탱크에서 발효시킨 후 살포기를 통해 논이나 원예단지에 밀거름·추비 등으로 뿌리는 것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마리당 5,000~10,000원씩 들어가던 분뇨처리 비용이 해결돼 양돈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됨은 물론, 수두작 농민들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청정 쌀로 판매할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어, 시당국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시설투자 80%지원)해주고 있으며, 수두작·원예단지 농민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젊은 양돈인

이해운씨의 경영비결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는 육종을 통한 우수한 중돈이용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정확한 사료급이체계와 자가노동력 이용으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 그리고 셋째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한 높은 가격의 규격돈(A등급, B등급 출현률 90%)생산, 또한 넷째로는 분뇨처리



▲올해 3월 각계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뇨를 논에 뿌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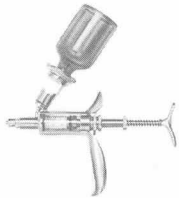
등의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그의 몸에 배인 성실·근면과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업구상능력과 추진력에 힘입은 것으로써 그의 가장 큰 경영비결은 변치않는 굳건한 양돈인으로서의 자세와 이해운씨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현 규격돈 생산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수출돈을 생산해도, 등급이 조금 낮게 나오면 차라리 지방 상인들에게 파는 것보다 더 싼 가격을 받는다. 또한, 너무 커 체중인 넘어서면 D등급을 받는 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으며, 그는 기존의 많은 양돈인들이 질병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 언제 백신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양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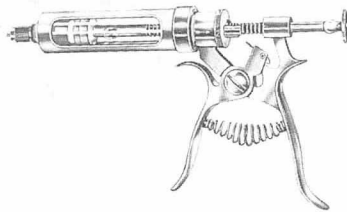
들의 자각을 해야 할 때이며, 젊은 양돈인들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본회 익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젊은 양돈회원의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를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해’로 정하고 회원의 연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는 중3짜리 장남을 둔 2남 1녀의 가장이며, 주위에서 이름난 효자이기도 하다. 본회 익산지부장직을 맡고 있어 주중에 바쁜 일정속에서 하는 일이 많아 일요일에 농장일을 많이 한다는 이해운씨는 아이들이 이젠 돼지를 몰아주는 등 제법 도움이 된다는 말과 함께 도시 사람들에게서는 잘 볼 수 없는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養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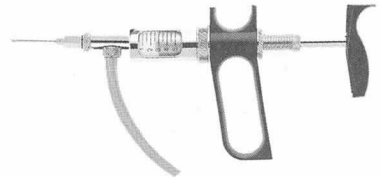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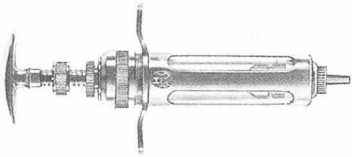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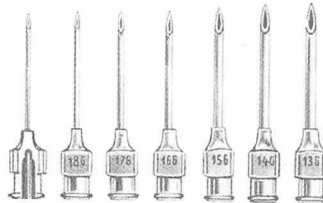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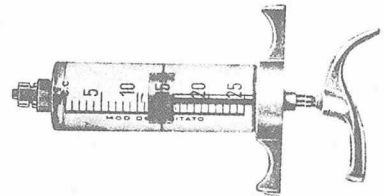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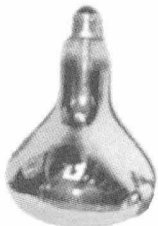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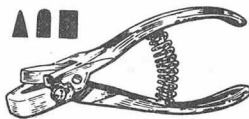
⑤ HENKE 주사침



⑥ P.V.C 주사기(반영구)



⑦ 적외선전구(수입품)



⑧ 이각기(귀절단)

KW 경 화 축 산

주소 : 서울·마포구 동교동 164-31
 ☎ 338-2548, 7013, 338-5510, (야간) 749-1465
 FAX : (02)338-1020, (0349)32-1787